

알티솔라, 이태리 태양광발전소 건설

SGP와 19MW급 건설·운영 협약 ... 3억달러 투입해 50MW 추가 건설

알티솔라(대표 김문영)는 이태리에서 19MW급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나선다.

박막형 태양전지 생산기업인 알티솔라는 8월20일 서초구 염곡동 KOTRA 본사에서 이태리 SGP와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운영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알티솔라는 1억1000만달러를 투입해 2010년 말 완공을 목표로 이태리 토리노 인근에 19MW급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태리 태양광 전문기업인 SGP는 토리노 프로젝트의 개발과 인허가 획득을 맡았으며, 생산된 3300만KWh의 전기는 이태리 전력공사에 판매하고 신·재생 에너지 생산에 지급되는 정부의 보조금도 받게 된다.

알티솔라는 2010년까지 2차 계약을 성사시켜 3억달러를 투입해 2011년 50MW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KOTRA는 밀라노 코리아비즈니스센터(KBC)를 통해 알티솔라의 태양광발전소 건설계약이 성사되기까지 적극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8/20>